

안전을 바탕으로 건강한 가치를 제공하는 Health Care 전문기업

유구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웅진식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강기능식품 기업으로 1976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34주년을 맞고 있다. 주로 자연에서 나는 재료를 그대로 음료로 담아 소비자에게 건강을 선물한다. 김영이님은 '아침햇살', '하늘보리', '자연은' 등의 건강음료를 탄생시켰다. 이렇듯 소비자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Health Care 전문 기업. 그 바탕에는 근로자의 안전 또한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존중의 강령이 숨어 있다.

웅진식품 주식회사

취재 · 사진 | 임재근 기자(taru@safety.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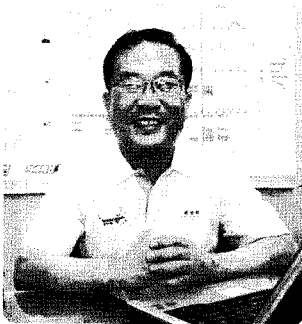
충남 공주시 유구읍의 유구농공단지, 험준한 산과 유유히 흐르는 작은 유구천이 있는 이곳은 여느 한적한 시골마을 풍경과 다르지 않다. 외딴 이곳에 웅진식품 유구공장이 들어서게 된 배경에는 웅진의 창업자인 윤금석 회장이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고향이기 때문이다. 평소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던 윤회장은 고향에 공장을 설립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으며, 그 뜻으로 웅진식품을 비롯한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공장의 근로자 80%가 이 고장 출신이라고 한다. 1976년에 설립된 웅진식품은 1996년 이곳 유구공장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건강음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1999년 아침햇살과 초록매실을 출시하고 이듬해 하늘보리를 출시하면서 우리나라 음료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고 왔다. 이후 꾸준한 연구개발과 제품생산, 그리고 정직한 기업경영으로 소비자 신뢰기업대상, 대한민국 철탑 산업 훈장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기업책임과 역할강화를 통해 건강한 자연 속에서 건강한 행복을 추구하는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안전의 날 지정운영

웅진식품 유구공장에서는 매월 1회 “안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월 4일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안전 점검의 날”의 의미를 실천하고, 한 달에 한 번 대대적인 안전과 관련된 행사나 점검을 통하여 근로자 스스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게 하고, 현장에서는 위험요인에 대한 발굴과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날은 공장의 최고책임자인 본부장을 비롯하여 각 팀의 팀장,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등이 합동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매월 진행되고 있는 안전점검은 그달에 맞는 소테마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협착에 대한 위험점에 대한 중점 점검, 끼임점에 대한 중점점검 등 위험요인에 대한 것과 하절기, 동절기 등 계절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발굴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은 해당 팀들에게 전달되어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개선이 실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런 안전의날 지정과 운영은 전사적으로 이루어지는 WTPS 혁신운동과 연동되어 연간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목표(KPI)를 세워 발굴건수 대비 개선실행 건수를 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팀과 개인의 인사고과에 반영되도록 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 성과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안전 및 생산활동 개선을 위한 혁신활동

200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혁신활동은 안전을 비롯하여 환경과 품질, 작업환경 개선 등 생산활동과 관계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상상오션(상상Ocean)”이라고 일컫고 있는 전사적 제안활동은 여느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제안활동보다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 직원 월 8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달성율이 무려 96%(평균 7.7건/인)에 이를 정도로 많은 제안이 이루어진다. 이는 단순히 제안에만 그치지 않고 제안된 안전은 사소한 것이라도 관계부서를 거쳐 상부로 보고되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즉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지고, 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나 타



웅진식품 주식회사 박정진 본부장

기업활동의 근간은 바로 근로자..

저희 회사의 경영 방침 중 우선은 바로 안전경영에 있습니다. 기업 설립 시부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존중 이념을 바탕으로 공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기업활동을 지속해 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책임임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하에 저희 웅진식품 유구공장은 근로자분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양한 안전관리활동을 펼쳐가고 있으며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발굴과 개선을 꾸준히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의 각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근로자분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와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따로 일정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있다.

공정에 따른 안전작업을 위한 조치

음료를 생산하고 있는 이곳의 공정은 크게 원료와 공병입고→추출, 배합공정→공병투입, 세척, 공병예열, 주입, 살균냉각, 라벨부착 공정→포장, 적재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음료 생산은 컨베이어시스템을 타고 흐르는 대규모 설비에 의한 장치산업으로 무엇보다 기계설비에 의한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모니터링이나 검사를 위해 현장을 이동하는 경우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나, 생산과 청소 등을 위한 다량의 물의 사용으로 바닥이 미끄러워 전도사고에 대한 위험이 높다. 이러한 위험은 분임조활동을 통하여 바닥의 물기를 확인하고 이를 수시로 제거하여 전도사고를 예방하고, 컨베이어벨트의 이동경로에는 구획을 통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원료의 입고와 제품 적재 및 출하 시 다수의 지게차 운행이 불가피한데 지게차에 의한 충돌이나 지게차 전도에 의한 위험은 안전속도 준수, 면허소지자 배정 등을 통해 위험을 예방하고 있다. 특히 지게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월 1회 지게차 사용 교육과 안전수칙준수에 대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무재해 실현, 풀뿌리 안전주의

이곳의 안전활동의 특징은 전 직원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운영에 있다. 매일 이루어지는 다수의 제안에는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제안이 상당히 많다는 것에서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부장을 비롯하여 관리감독을 하는 관리자 역시 품질이나 생산성 향상에 앞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과 안전사고의 예방을 강조함으로써 현장의 분위기를 안전을 우선하는 문화로 이끌어가는 것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전활동이 단순한 관리기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 또는 공장을 운영하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사고의 위험이 높은 위험요인부터 사소한 위험까지 끊임없이 발굴되고 개선되고 평가되는 시스템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이다. 이런 시스템이 완성되기까지 직원 전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부족한 점을 보충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안전관리기법이 아니다. 바로 참여와 실행이다.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행을 이끌고 있는 웅진식품 유구공장, 올 한해 한 건의 사고 없이 경영목표인 무재해 실현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

